

인 사 말

조계종단은 출가 승려인 비구, 비구니와 재가 신도인 우바새, 우바이 등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종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각 사찰에서는 신도들과 함께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은 선언적인 당위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으로서 저는 지난 1월 26일 신년 담화문을 통해 ‘자성과 췌신 결사’로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모든 종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성’은 스스로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췌신’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며, ‘췌신’은 잘못과 허물을 반복하지 않고 빠져린 각오와 가슴 절절한 의지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물론, 대중과 세상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신뢰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이, 우리 스님들이 얼마나 신도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들과 함께 하고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췌신’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사’입니다.

지난 3월 23일 중앙종무기관 차원의 결사 입재 법회를 하면서 종단은 4가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첫째는 <종단 및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공동체 실천>이고, 둘째는 <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사 심의 강화>이며, 셋째는 <각종 의례 및 의식 우리말 표준화>이고, 넷째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 바로알기 사업 전개>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바로 종단 및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공동체 실천의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 총무원장이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종단 운영 현황을 신도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신도들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신도여러분들께서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는 실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며 찬란한 문화입니다. 매 순간마다 수행과 출가 정신을 놓지 않았던 스님들과, 신심과 원력으로 다져진 신도님들의 공덕으로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 1700년의 역사를 이어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랑스러움은 가슴 한 켠에 고이 간직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화와 선대(先代)의 공덕(功德)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책임 있는 불제자이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과감히 변화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신도들이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종교 편향, 사회적인 종교 차별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구하고, 싸우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종교관이 옳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신행 태도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못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느 곳에서 만나도 불자다운 모습과 향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곧 ‘자성과 쉼 결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 신도회와 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주어야 할 변화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견해와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도회를 이끄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협조는 안하면서 비난이나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신도 대표자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신도 대표자로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오늘로써 끝이 아니라 앞으로 분기별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신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종단 운영 현황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구하겠습니다. 신도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좋은 의견을 귀담아 들어 종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찰에 돌아가면 더욱 더 열심히 수행 생활해 주시고, 사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찰에서부터 작은 실천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는 각각의 사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신도들과 함께 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신도들이 없으면 스님도 종단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도님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만 보고 비판만 하고 문제점만 들추어내기 보다는, 함께 하고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고, 할 일을 찾아 실천하는 신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인 저와 신도회 대표인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들고, 종단을 향한 공심(公心)으로 뜻을 모으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히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